

“전국 온정 모아 발달 장애 가족 보금자리 지었죠”

광주 남구청·장애인 복지관 등 협업 전국 후원자 4000명 성금 995만원 50년 된 흙집, 조립식 주택 지어 제공

가족 모두가 발달 장애인인 한부모 가정이 50년 넘은 낡은 흙집을 떠나 새 보금자리에서 살게 됐다. 18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대촌동 외딴 곳의 낡은 흙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A씨와 B씨, C씨 가족이 최근 조립식 주택을 선물 받았다. 이들의 새보금자리에는 남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후원자 4000여명이 온정이 깃들여 있다. 이들 가족이 머물던 집은 흙으로 지어진 노후 주택인데다, 지난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심각한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해 더이상 거주 불가능한 상태였다. 집 천장과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붕괴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A씨 가족은 주택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곳을 떠날 생각도 없었다. A씨가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보냈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마을 인근에 마련된 남편의 묘소를 매일같이 찾다니며 보살피는 게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때문이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은 10여년 전부터 A씨 가족에게 살터를 옮길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끈질긴 설득으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남구청과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엠마우스 복지관을 협업해 이들을 위한 이웃들과 새보금자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 제공>



장애인 가족이 도움을 준 이웃들과 새보금자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 제공>

관에서는 A씨 가족의 금전 관리를 도맡았으며, 아들 B씨는 복지관의 도움으로 취업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엄마와 아들, 딸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더욱 더 행복한 복지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mskim@kwangju.co.kr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20개 우수 회원조합 시상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8일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2020년 산림조합 종합 시상식'을 열고 상호금융부문 종합업적평가, 조합원 운영부문 등에서 20개 회원조합을 시상했다. 우수 임업경영인 대상은 장흥군산림조합 이성격 임업인 조합원이 받았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제공>

파랑새안과, 광주모금회 희망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원



파랑새안과(대표원장 임선택)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광주 동구 지역 그룹홈 아동들의 학습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난공불락’ 겨울철 K2 첫 등정...네팔 셰르파 10인 산악역사 다시 쓰다

에베레스트 이은 세계 2위 고봉

네팔인으로 구성된 등반팀이 산악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철 히말라야 K2봉(8611m) 등정에 성공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셰르파 10명으로 이뤄진 등반팀이 이날 오후 정상에 올랐다. 이번 등반에 참여한 트레킹 업체 ‘세븐 서밋 트렉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해냈다”라며 “네팔 등반인들이 현지시간 오후 5시에 정상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북부의 중국 국경 지역에 자리 잡은 K2는 에베레스트(8848.86m)에 이은 세계 2위 고봉이다. ‘야만적인 산’ (savage mountain)으로 불릴 정도로 등정 난도가 높은 봉우리로 꼽힌다. 산악인 사이에



서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등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2008년 8월에는 11명의 산악인이 K2 등정에 나섰

다가 눈사태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히 겨울철 K2는 ‘난공불락’이었다. 정상 부근의 풍속은 시속 200km 이상까지 올라가고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등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2는 8000m 이상 14개 고봉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철 등정이 이뤄지지 않은 산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네팔 등반대를 제외하고는 겨울철 K2 등정에서 7650m 이상 지점에 오른 예도 없을 정도였다. /연철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55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	10 좋은 아침
[10]	00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00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속아구멍구멍(재)	00 12 MBC 뉴스 20 와우와 오 롤링프렌즈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재난탈출 생존왕(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불타는 청춘(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20 빈집 살래 in 서울 확장판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토론	
[12]	10 KBS결착 다큐멘터리 <하늘에서 본 암자>(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10 나이트 라인 40 네모세모(재)

EBS1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태시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15 출동! 슈퍼스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꼬마타이로 슈퍼잭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8:00 당동영 유치원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8:30 두다다쿵	09:00 뽀뽀뽀 뽀로로	13:00 신년특별기획-듣고보고 라디오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09:30 명탐정 피트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09:40 우리집 유치원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한시로드, 영웅호걸전 -시성 두보 이야기>
09:30 명탐정 피트	10:30 한국기행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15 올리 앤 문	<그들이 사는 세상 2부 시골 로망스>
10:30 한국기행		16:30 당동영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50 해와와 해와	22:45 건축탐구 - 집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9일(음 12월 7일 丁卯)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유혹에 이끌리다보면 후회하게 된다. 48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이다. 60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72년생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후유증을 남게 된다. 84년생 무리한다면 다음 날에 지장이 있다. 96년생 운용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8</p>	<p>午</p> <p>37년생 지금 바로 잡아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49년생 시련은 앞날 결실을 가져다주는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61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 아니라. 73년생 방심하지 말라. 85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라. 97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5, 87</p>
<p>丑</p> <p>37년생 지금 바로 잡아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49년생 시련은 앞날 결실을 가져다주는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61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 아니라. 73년생 방심하지 말라. 85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라. 97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5, 87</p>	<p>未</p> <p>38년생 함께하는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50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라. 62년생 서두를수록 시원스런 진척을 보일 것이다. 74년생 가능한 일이나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86년생 주의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98년생 체면에 관련된 일이라면 노출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7, 66</p>
<p>寅</p> <p>39년생 필연적인 형국이만큼 각오하고 임하라. 51년생 튼실하게 보였던 것이 허락 것이다. 63년생 선후를 가려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 75년생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라. 87년생 과감해오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 될 것이다. 99년생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커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79</p>	<p>申</p> <p>40년생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라. 52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을 가능케 하리라. 64년생 자제하지 않는다 면 공격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76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영동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88년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부심하게 된다. 00년생 세목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다. 행운의 숫자 : 21, 52</p>
<p>卯</p> <p>40년생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라. 52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을 가능케 하리라. 64년생 자제하지 않는다 면 공격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76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영동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88년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부심하게 된다. 00년생 세목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다. 행운의 숫자 : 21, 52</p>	<p>酉</p> <p>41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이나 놓치지 않도록 하자. 53년생 가급적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65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77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89년생 질적인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난감해진다. 01년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5, 58</p>
<p>辰</p> <p>41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이나 놓치지 않도록 하자. 53년생 가급적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65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77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89년생 질적인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난감해진다. 01년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5, 58</p>	<p>戌</p> <p>42년생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이로다. 54년생 미봉책은 두 번일 시킬 것이니 제대로 하자. 66년생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바로 잡아야 할 것이로다. 78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90년생 생기는 하나만 족 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 하겠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 02년생 매우 혼란스러운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92, 64</p>
<p>巳</p> <p>42년생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이로다. 54년생 미봉책은 두 번일 시킬 것이니 제대로 하자. 66년생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바로 잡아야 할 것이로다. 78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90년생 생기는 하나만 족 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 하겠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 02년생 매우 혼란스러운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92, 64</p>	<p>亥</p> <p>43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으니라. 55년생 실행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67년생 노력 못지 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준다. 79년생 드러나는 행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91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03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9, 67</p>
<p>午</p> <p>43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으니라. 55년생 실행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67년생 노력 못지 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준다. 79년생 드러나는 행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91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03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9, 67</p>	<p>子</p> <p>32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44년생 알고도 속아주는 임장이 될 수밖에 없다. 56년생 계획대로 임해야 앞날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68년생 중박 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80년생 불가피 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92년생 현재의 고통스러운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94</p>
<p>未</p> <p>32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44년생 알고도 속아주는 임장이 될 수밖에 없다. 56년생 계획대로 임해야 앞날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68년생 중박 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80년생 불가피 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92년생 현재의 고통스러운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94</p>	<p>丑</p> <p>33년생 지금 추스르지 못하면 더 엉망이 될 수 있다. 45년생 발상에 있어서 유연하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57년생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보이나 강우에 대비 해야겠다. 69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손해로 이어진다. 81년생 운로가 길 하니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93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 되면서 복잡해지지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0, 60</p>
<p>申</p> <p>33년생 지금 추스르지 못하면 더 엉망이 될 수 있다. 45년생 발상에 있어서 유연하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57년생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보이나 강우에 대비 해야겠다. 69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손해로 이어진다. 81년생 운로가 길 하니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93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 되면서 복잡해지지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0, 60</p>	<p>寅</p> <p>34년생 원칙은 알고 있어도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 46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58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70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82년생 사필귀정 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94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나. 행운의 숫자 : 01, 78</p>
<p>酉</p> <p>34년생 원칙은 알고 있어도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 46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58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70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82년생 사필귀정 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94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나. 행운의 숫자 : 01, 78</p>	<p>卯</p> <p>35년생 주변의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웃음을 갖고 밀어 붙여라. 47년생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를 먹었다. 59년생 엄연히 왔던 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능력이 나온다. 71년생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 83년생 미면에 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95년생 기묘한 성국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61</p>
<p>戌</p> <p>35년생 주변의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웃음을 갖고 밀어 붙여라. 47년생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를 먹었다. 59년생 엄연히 왔던 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능력이 나온다. 71년생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 83년생 미면에 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95년생 기묘한 성국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61</p>	